현대 패션에 나타난 Eroticism에 관한 연구

－초현실주의와 팝 아트의 Eroticism을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예술대학 의상학과
조교수 이 효진

目 次

Ⅰ. 서 론
Ⅱ. 예술에 있어서의 Eroticism
1. Eroticism의 개념 및 예술에서의 의미
2. 시대 변천에 따른 Eroticism의 표현 의미
Ⅲ. 현대 패션에 표현된 Eroticism의 특성
1. 초현실주의의 Eroticism과 현대 패션
1) 초현실주의 회화에 표현된 Eroticism
2) 현대 패션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회화의 Eroticism
2. 팝 아트의 Eroticism과 현대 패션
1) 팝 아트에 표현된 Eroticism
2) 현대 패션에 나타난 팝 아트 회화의 Eroticism
Ⅳ.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Ⅰ. 서 론

현대 문명의 특징은 대량 생산과 그로 인한 대량 소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현대 사회는 소비문화 속에 존재하며 그 구성원인 현대인은 물질풍요에 의해 소비지향적이고 기계적이며 획일화된 사고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현대 사회 속의 인간 소외 현상은 전반에 걸쳐 성(性)의 소외나 성애(性愛) 그 자체에 왜곡되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은 단세포적인 현대인의 가치기준에 단지 성의 상품화에 불과한 것이다. 과거에는 성 본능이 문화와 관습에 의하여 억압되고 억제되었으며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었으나 성의 본질이 사회 제도와 문화의 하위개념이라기 보다는 그것을 능가하는 정신 세계로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하고 보다 더 긍정적인 문화발달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인간이 성을 물질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정신적인 것으로 볼 때, 성은 긍정적인 가치로써 우리의 사회를 유연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역사적 시대 흐름 속에서 예술의 거의 전 시대에 걸쳐 억압과 금지 속에서도 성적인 주제를 다루었다. 즉 예술에서는 어떤 성적 행동의 양식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아닌 인간이 지닌 자연적 본능으로써의 성이 모든 인간 생활의 근원에 자리잡고 있는 본능적 욕망이기 때문이다.

회화, 조각, 연극, 춤, 영화 등 모든 예술의 성적 표현은 인간의 심리적 감동을 유발함으로써 새로운 인식과 감각을 느끼게 하였고 현대 예술에 있어서 점점 더 결핍되어 가는 예술과 대중과의 유기적 관계가 확립되었다. 즉 성행위 그 자체는 에로틱한 것이 아니며 성행위의 이미지를 환기시키거나 암시하거나 또는 표현하는 것이 에로틱한 것인데, 즉 에로티시즘이란 생물로서의 인간이 본능적 욕망과 생식행위와는 무관한 본질적으로 심리적 기반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명력이 넘치는 에로티시즘은 인간 본래의 감각과 사고를 증진시킴으로써 인간 행동에 관한 모든 분야에 깊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에로스는 불완전한 인간이 영원한 아름다움이나 완전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데, 인간이 자신을 보다 아름답게 꾸미려는 충동은 바로 에로스 작용에 근원하며 이 에로스가 복식에 표현된 양식이 바로 복식의 에로티시즘이라 할 수 있다.

현대 여성 패션에서의 에로티시즘은 단순한 성본능의 표출만이 아니고 패션의 흐름 속에서 구현되는 아름답고 개성적이며 만족스러운 디자인을 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미적 쾌감과 만족감을 부여하는 패션 디자인이 삶에 윤택함을 줌으로써 예술의 한 영역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인간의 감각에 따라 에로티시즘의 표현형태는 그의 인격을 형성하는 다른 어떤 근본적인 특성에 못지 않는 본질적으로 필요불가결한 것이 된다.

또한 에로티시즘에 있어서 현실 표현을 정신주의에 입각한 개념 표현으로 승화시키는 작업을 오늘날의 예술가와 대중의 과제이며 그것으로 에로티시즘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숭고미와 고결미를 지향해 나가는 데서 에로티시즘의 미학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과거에는 감추어진 형태나 은밀한 암시로만 나타났으나 오늘날에는 직선적으로 표현되는 에로티시즘이 현대 패션에서는 어떠한 내적 의미를 가지고 표현되고 있는 가를 분석 고찰하였다. 그리하여 과거에서의 탈피를 내세우는 현대 조형 예술에서 현대적 양식을 형성하고 있는 에로티시즘이 인간의 자율적인 인격활동과 깊이 관련이 있음을 밝히는데 그 의의를 두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예술 이론 서적 및 작품 등의 문헌 연구와 선행 연구를 통하여 에로티시즘의 개념과 고대 그리스 부터 현대까지의 시대적 변천에 따른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 중 선행 연구는 예술에 있어서의 에로스 의미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1-4] 및 초현실주의와 팝 아트 회화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에 관한 연구[5-8], 조각과 광고 사진에 관한 연구[9-10] 그리고 복식 디자인에 있어서의 에로티시즘 연구[11-12] 등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 설정에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이 선행 연구의 방향은 예술의 한 분야인 회화나 조각 등에 국한된 것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예술 양식과 더불어 조형예술인 의상까지 포함하여 에로티시즘의 표현 형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1991년부터 1992년까지의 Italy Harper's Bazaar와 1993년 출판된 Moda를 중심으로 해외 콜렉션에서 발표된 현대 패션에서 에로티시즘의 조형적인 면을 초현실주의와 팝 아트의 회화 작품과 관련지어 분석하였다.

연구의 한계로는 예술 사조를 초현실주의와 팝 아트만으로 한정지어 에로티시즘 양식을 고찰한 점이다. 이것은 앞으로 많은 현대 예술 양식에서 이 에로티시즘적 표현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리라 보며 회화만을 택해서 분석한 점도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역시 다른 예술 형태에서 표현된 에로티시즘의 양상 또한 의상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도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Ⅱ. 예술에 있어서의 Eroticism

1. Eroticism의 개념 및 예술에서의 의미

에로스(eros)라는 말은 옛 그리스 사람들이 만들어 내고 사용했을 때에는 에로스와 성애를 혼돈해서 쓴 경우도 적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사랑으로 부르는 것을 에로스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또한 상식이나 이성을 벗어난 행동 가령 사랑에 눈이 어두어져서 저지르는 일들은 모두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신적인 힘 때문이라고 간주하고 이러한 초절적인 힘의 하나에 에로스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13-14]

그리스어에 어원을 두고 있는 에로스는 원래 육체적인 사랑과 정신적인 사랑을 포괄하는 개념의 용어였으나 근대에 와서는 주로 성애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에로티시즘이란 생물로써의 인간의 본능적 욕망과 생식행위와는 무관한 본질로 심리적 기반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에로스는 신경생리학적 차원 뿐만이 아니라 미학적, 윤리학적 차원에서도 형식, 가능성, 의미의 보다 높은 수준에서 참여하며 인간의 가능성을 말해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에로스는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적극적 성향들을 총칭하는 개념이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에로스는 인간의 육체적 생식에서 부터 정신적 출산, 즉 창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행위를 있게 하는 직접적 충동이요, 근원적 추진력이기 때문이다. 에로스는 불완전한 인간이 영원한 아름다움이나 완전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즉 인간은 에로스를 통해 자신의 유한성을 넘어설려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현세적이고 의식적인 존재에서 그 자신의 불완전성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자각은 찰라적인 만족 이상의 것을 찾고자 하는 열망과 불가분 연결되기 때문이다.

에로틱이라는 단어는 종종 불건전함의 의미인 성적인 범죄나 비도덕적인 것을 가르치고 육욕이나 변태성 등의 사회 악인 것들을 포함한 말로도 알려져 있다.[15] 특히 현대 예술에 있어서 '에로틱'이라는 명제가 붙으면 그 작품은 질이 낮은 저속한 것이거나 불량품 등으로 대모되기도 한다. 그러나 외설은 고의로 비윤리적인 관점에서 성애를 환기시키나 에로티시즘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조형본능을 발산시켜 인간을 새롭게 함에 그 역할이 있다.

에로티시즘은 성욕, 애욕, 그 자체가 아니고 애욕을 환기시키기도 하고 유발하기도 하며 표현하기도 하고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즉 자연적, 동물적 목적과는 독립된 심리적 욕구로써 인간의 문화적 전통과 신화, 습성, 종교, 예술 등의 내부 깊숙히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 성이 감정적 측면인데 반해 에로티시즘은 성의 객관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16]

에로티시즘은 감각, 지각, 운동적 쾌락의 의식적 개발로써 성애로 부터 성을 초월한 세계의 존재에 깊이 관련되는 지각과 인지를 구조화 하는 강한 생의 충동이다. 따라서 에로티시즘은 나르시즘적 고독과 우발성, 유희성, 도박성을 그 활동의 근저로 삼고 있으며 고대부터 수 많은 화가들로 하여금 누드의 신비로움을 에로티시즘에 견주어 표현했다.[17]

에로티시즘은 에로스로서의 사랑을 행동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의식화 하는 것이며 때로는 사랑을 하나의 가치로써 주장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며 이리하여 에로티시즘은 인간의 자율적인 전개 행위를 통하여 내재적 완성에 도달하려는 예술활동으로 드러난다. 에로티시즘은 궁극적으로 인간 심리에 있어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방법을 통하여 예술성의 다원화와 인간이 치부해 온 저속한 심리상태를 재정립하여 승화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성의 해방을 합리적으로 이론화 시킨 사람인 Freud(Sigmud Freud:1856-1906)는 성을 진보적 의미로 발전시켰고 그에 대한 대중은 성에 대한 지식을 자연스럽게 획득할 수 있게 되었고 성

의 해방이 표면적으로 연상화되기 시작했다. 그는 성이라는 개념을 성기적인 측면에 국한시키지 않고 '남녀의 양성(兩性)의 차이에 관계되는 모든 것'이라고 했으며 생물학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문화적 활동까지 포괄하는 '리비도(libido)' 개념으로 확대시켰다.[18] 이러한 성에 대한 시각화와 영상화는 에로티시즘의 왜곡을 유발하는 오류를 낳기도 했지만 Freud의 리비도 개념은 상징주의, 표현주의, 초현실주의의 회화에 많은 영감을 제공해 줌으로써 예술의 표현 범위를 넓혀 놓기도 했다.[19]

예술의 근본 목적은 인간의 감정과 정서에 호소하여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예술은 개개인의 정서적 구조와 무의식 세계의 가장 깊은 근원까지 파고 들어야 한다. 그런데 인간의 무의식적 소생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본능과 연결된 에로티시즘으로 이러한 창작심리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인간의 마음과 감정 생활에 관한 현대의 온갖 사상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20]

예술가는 그의 무의식적 편향과 요구를 전이 또는 대치의 매커니즘에 의해 또는 기존 감정을 새로운 관념에 연상시킴으로써 그 감정을 방출하는 것이다. 성본능이 만족되어 있는 시기에는 상상력이 빈곤하고 욕구가 일어나는 시기에는 상상력을 자극하여 그 상상력이 예술의 일대 원천이 되는 것이다. 무의식이라는 것은 대체로 성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며 성적 충동은 무의식의 주요 담지자이며 예술에 나타난 심적 에너지의 변용은 성적 에너지의 변용이다. 예술은 항상 무의식과 억압된 충동 또는 욕구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예술가도 직접적 성적 목표를 바꾸어 창조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성적 활동이 인류의 보편적 속성인 한 에로티시즘이란 사회에 따라 시대에 따라 변하는 문화적 개념인 것이다. 따라서 현대에 있어 성애의 문제를 에로시티즘의 개념과 혼돈한 채 모든 것을 섹스로 귀결시켜 도덕적인 비판으로 시작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인간 본성을 회복하는 하나의 계기로써 에로티시즘은 재평가되고 인식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성의 사회적 의미, 성이 인간의 생존과 문화에 미치는 영향, 성의 건강성 등에 대한 보다 인간화된 접근이 요청되어야 한다. 또한 성의 약탈이 제도화되고 상품화된 이 시대의 우리 자신 의식의 심연에 깊숙히 자리하고 있는 성의식이 예술을 통해 본질과 침탈과 능욕으로써의 성이 아니라 소통과 애정의 표현으로써의 성의 가치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받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시대 변천에 따른 Eroticism의 표현 의미

원시 시대부터 현대의 수많은 이즘과 행위 예술에 이르기까지 성을 주제로 택하지 않은 시대는 거의 없었으며 예술가들은 많은 작품을 통하여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을 나타내는 것 이상으로 인간의 생과 사에 대한 지향까지를 의미하는 에로티시즘을 상징적으로 타나내고 있다.

원시 시대의 성에 대한 묘사는 원시인들의 생명현상을 탐구하는 의식에 의해 자주 표현되었다. 원시인들은 성에 대한 수치라든가 억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관능적인 면보다는 건강하고 신비로운 생의 본능[21]으로 표현하였다. 이 원시 시대에는 종족 보존과 종교의식을 상징하는 사회적 의미의 성개념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복식에서도 인체 자체를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 가슴과 배를 강조하거나 투명하게 비치는 재질로 성적인 부위를 드러내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원시미술에 있어서 에로시티즘은 미술 형식 중에서 가장 순수한 형태이며 가장 오염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원초적인 본능의 가장 순수한 인간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교를 부리지 않는 초자연적 감성의 표현이었다.

고대 그리스에 있어서의 에로티시즘은 이상화 과정을 통한 순수한 육체에 대한 예찬이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에로티시즘은 성충동을 유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미감(美感)을 불러

일으키는 완벽한 인체의 구현[22]으로써 이 시대에 인간의 누드는 금기였기 때문에 神의 이름을 통해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스 미술에서 보여졌던 이상적인 인체의 완벽한 구현은 로마로 이어졌는데 이 때의 성은 아름다운 인체에 대한 탐구로 대체시켜 관능적인 인간의 육체에 신화와 전설을 적용하면서 이상미와 숭고미로 승화시켰던 것이다.

이 같은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의 인간의 육체에 대한 사고와는 대조적으로 유럽이 종교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자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인해 인간의 육체는 가장 중요한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일 뿐 천박한 동물적 욕구만 일으켜 고고한 정신생활에 방해만 되는 귀찮은 것으로 치부되어 그 육체에 욕구를 거부하는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세를 맞이하게 되었다.[23]

중세인들에게 있어서 에로티시즘의 개념은 극도로 위축되어 종족번식을 위한 절제된 성행위만이 허용되었을 뿐 그 밖의 성행위는 죄악시 되었다. 이 시기에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의 대부분이 집약적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예술 작품은 표현양식에 의하여 평가되지 않고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로 인하여 예술작품은 종교적인 입장에서 성서의 한 장면을 해석하는 형식을 빌리게 되었으며 기독교의 육체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종족 번식을 위한 성행위 만을 허용하였으므로 작품들은 인간이 육체의 쾌락을 통해 저지른 죄를 대변이라도 하듯 모두 부끄러운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근세 사상이 발달하고 사회 구조가 변화되는 18세기에 이르면 화가들이 교회와 목사와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우회적인 성표현을 한 예술 작품들이 암암리에 대중 속에 잠식해 들어갔다. 그러나 이것은 극히 일부의 부유층과 귀족층 사이에서만 유통되었고 일반 시민과 동떨어진 세계였다. 일명 침실화라고 부른 동판 작품들이 춘화형식을 띤 직설적인 성의 양태를 보여주고 있지만 재치있고 유머러스한 표현을 구사하여 풍자화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21]

이렇게 예술은 전 시대에 걸쳐 에로틱한 주제를 다루어 왔지만 근대 이후 자아의식의 확립과 심리학적 발전, 그리고 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보다 활발하게 에로티시즘을 주제로 다루게 되었다.

근대의 에로티시즘은 성적인 것의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환기 내지는 본래 성과는 관계없는 목적을 지닌 기능에 까지 성기애(性器愛)를 확대한 것이다. 즉 에로티시즘은 감각, 지각, 운동적 쾌락의 의식적 개발로써 성애(性愛)로 부터 출발하여 드디어 성을 초월하여 세계의 존재에 깊이 관련하려는 지각, 인식을 구조화하려는 강한 생의 충동이라고 할 수 있다.

Freud를 시조로 하는 정신분석학은 인간의 본연과 무의식계, 의식계를 중심으로 하는 동기로써 행동의 문제를 풀려는 시도였다. 인간의 충동이나 욕망은 주로 무의식적인 면에 있다고 주장한 그의 이론은 인간의 마음과 감정생활에 관한 현대의 많은 사상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에로티시즘적 요소를 많이 응용하는 현대의 예술 양식에 절대적인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다.

에로티시즘이 1차 대전 이후의 정치적 혼란의 시기 동안에는 침체된 상태였다 할지라도 1920년대 부터 성행동에 대한 태도가 다시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사회의 도식화, 산업화로 이러한 변화는 더욱 심해졌고 1930년대에는 윤리규범의 완화에 따른 성에 대한 관용은 자연주의 운동에 커다란 자극제가 되었다.

성적 표현은 인간에게 있어 아주 먼 원시 시대부터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예술의 소재가 되어 있었지만 초현실주의 미술에 이르러서 현실과 이념세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미적 에로티시즘으로 발전시켰으며 에로티시즘을 표현하는 독특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즉 에로틱한 예술은 예술은 경멸되고 억압되었으며 천대받아 왔으나 그것은 예술과 인류의 사회적 역사, 인간의 행복과 발전을 이해 하는데 중요한 역할[26]을 지니고 있다.

에로티시즘은 현대로 이르면서 차츰 유모어라는 감각에 자주 호소함으로써 대중에게 성에 관한 표현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하고 본질적으로 지극히 인간적인 것에 감정을 이완시키며 현대의 물질 문명에 의해 소외당한 인간의 정서를 환기시켜 준다.

현대 예술가들은 기존질서를 파괴하고 해체하려는 힘을 에로티시즘으로 나타내고 그들의 인간의 육체에 대한 재발견과 파행적 행위 언어의 표현 욕구로써 에로티시즘을 선택하였다. 또한 에로틱한 예술은 개인적인 행복과 정신적인 삶에 활력을 주는 성적인 자유를 위한 표출로써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적인 자유로움은 정치적, 경제적인 자유의 질적으로 높은 수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27]

인간의 성행동이 가장 인간 본연의 것이며, 또 예술적 표현은 인간의 가장 깊숙한 본능적 욕구의 표명이기 때문에 에로티시즘은 개방된 현대 사회에서 재료와 형태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강한 이미지 전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28]

에로티시즘의 표현은 제각기 다른 인종과 종교란, 지역적 환경, 시대적 환경에 따른 여건에 의해서로 비교될 수 있는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는데, 즉 문화적 특성에 따른 독특한 성적 양상을 볼 수 있다. 즉 에로티시즘은 궁극적으로 혁명적인 메세지를 전달해 주며 발전과 직관력의 잠재적 원천이 되고 있으며 역시 예술가를 자유로운 상상력에서 예술적 작품을 만들어 내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현대 패션에 표현된 Eroticism의 특성

원시 시대부터 현재까지 성에 대한 개념은 복식의 미를 새로운 형태로 창조해 내게 했던 내면적인 요인이었다. 특히 예술에 있어서 성에 대한 개념은 에로티시즘이라는 하나의 양식을 형성하여 복식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복식에서의 에로티시즘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현대 패션 특성을 인식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형 예술로써의 복식은 다른 예술과 비교·분석할 때, 그 시대 양식적 흐름의 미적 가치관이 파악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초현주의와 팝 아트 양식의 흐름에서 나타나는 에로티시즘의 조형성을 현대 패션과 관련지어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1. 초현실주의의 Eroticism과 현대 패션

1) 초현실주의 회화에 표현된 Eroticism

성적인 표현은 먼 옛날의 종교적 주술과 사회의 다산과 풍요에 의한 어떤 필요성에 의해 시도되어 오긴 했지만 금기처럼 여겨오던 성에 대한 관심은 초현실주의란 이념적 확산과 현실참여로 하여금 대중적 매개체로 한 보편성을 띄게 된 것이다.[29]

그리고 초현실주의자들은 오랫동안 잊혀졌던 신비주의나 원시적인 것, 즉 원초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다.[30-31] 그들은 1919년 자동기술법에 대한 실험에서 무의식 상태에서 나오는 언어의 흐름과 성적인 욕망 사이에는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인간 내면에 깊숙히 자리잡은 성적인 잠재의식의 세계를 예술에 표현하고자 하였다.[32-34] 이러한 상황은 예술 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전반에 까지 파고들어 현대에 이르는 대중매체 및 상품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의식의 다변화를 가져오게 된 동기[35]를 부여했다.

즉 초현실주의의 최고 이념은 '인간 해방'이라는 과제로 주요 의식 개혁의 목표로 설정되었으며 현실 속에서 선행되었던 인간의 '정신해방 운동'[36-37]은 초현실주의의 미술에 있어서 한 표현의 수단으로 에로티시즘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초현실주의자들이 에로티시즘에 심취했던 것은 Freud의 영향 때문이다.[38-39] Freud가 인간사에 있어서 성이 중심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 것은 그것 자체가 그 이전의 합리주의적인 제반 가정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도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었

다. 잠재의식 속에 견고히 뿌리박은 성은 초현실주의의 병기실에서 중요한 무기로 자리잡았던 것이다.[40] 그들은 인간의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를 변혁시키고 사회에 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성적 충동을 기본 미학으로 삼았으며 인간의 근원적인 성적 욕구를 승화시켜 여러가지 이미지적 차원으로 전개해 갔다.

정신 분석학이나 꿈의 상징 이론은 초현실주의 미술의 본질적 측면이라 할 수 있는 아이러니하고 외형적으로 부조리한 내용을 드러내 보인다.[41-43] 이러한 성적 충동의 표현이 단순한 성적 움직임과 구별하여 '죽음에 까지 이르는 삶의 찬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성 자체가 아닌 예술 그 자체, 즉 에로티시즘이라 할 수 있다.[44]

분명히 근대주의의 윤리감이 자아의 독립과 자유를 지나치게 옹호한 나머지 파산직전에 이른 인간 정신을 다소 소생시키려면 무엇보다도 그것이 본능의 뿌리에로 회귀를 꾀하도록 해야만 했다. Freud가 성을 강조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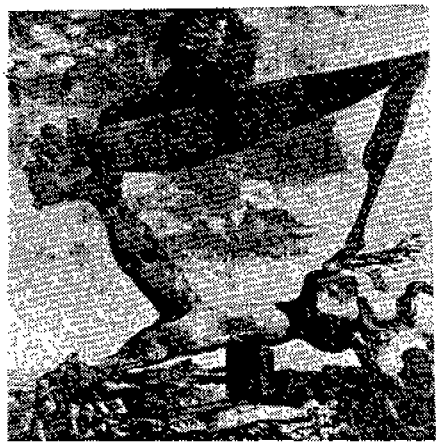
모든 에로틱한 예술작품이 전적으로 Freud의 이론에 입각하여 해석, 평가되서는 안되겠지만 그의 정신분석학적 제이론이 발표된 이후 그의 예술관이 초현실주의 작품에 성적인 무의식, 잠재의식의 영향을 암시하거나 확산시킨 효과로 볼때, 실로 획기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다.[45-47]

에로티시즘은 문명의 시작 이래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관심거리이며 흥미있는 주제인 동시에 대상물인 성의 고귀하고 지적이며 미학적인 표현의 즐거움을 얻고자 함에 목적을 두었다.

초현실주의자들의 에로티시즘은 세계를 향한 공격에의 욕망의 상징으로 표현된다. Dali (Salvador Dali : 1904~1989)의 『건축학적인 만종』 (그림 1)에 감추어진 의미는 꿈이나 무의식의 수준에서 나타난 성교, 그 자체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48-51] 그의 경우 정신분석학적 측면에서 Mile의 『만종』을 해석하여 억압된 성적 충동을 발견했다는 등의 기상천외한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Dali의 작품은 정신분석학이

(그림 1) Dali, 건축학적인 만종, 1934.

융합되어 새로운 차원에서 표현[52]되는, 즉 인간의 창작 본능을 눈뜨게 한다는 점에서 에로티시즘의 문이 열린다고 할 수 있다.[53-56] Dali 특유의 화풍이 보여지는 작품 『삶은 콩이 있는 부드러운 구조 : 내란의 예감』 (그림 2)은 왜곡되고 과장된 인체의 강한 표현과 극적인 강박관념을 보여주고 있다.[57] 그는 편집병적 정신분열 상태의 비판적, 분석적인 과정에 의해 피비린내 나는 전율과 구역질나게 하는 부패와 배설물, 전시, 에로틱한 낭패감과 나르시즘적인 도발과 충격의 소도구물을 쓰고 있다.[58-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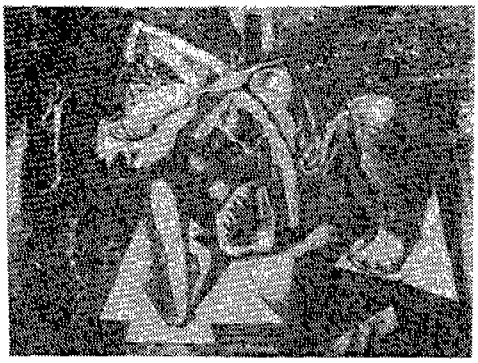
(그림 2) Dali, 삶은 콩이 있는 부드러운 구조 : 내란의 예감, 1936.

Miro(Joan Miro : 1893－1983)나 Tanguy(Yves Tanguy : 1900－55)의 회화에서도 남성의 생식기를 강조한 도착적인 면이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Tanguy의 회화에서는 어두운 고독과 색욕의 인상과 꿈의 세계의 대한 혼돈으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62]

Freud의 정신 분석방식을 원용하여 초현실주의 회화를 힘차게 또 특징적으로 표현한 Magritte (Rene Magritte : 1898－1967)의 『강간』(그림 3)을 보면 서로 다른 물체를 한데 어울려 놓아 전혀 새로운 형상미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이른바 이미지의 융합이라고 볼 수 있다.[63－66] 이 작품을 통해서 습관적 가치관도 행위를 파괴하며 미술내용이 장식적이고 쾌감을 자아내는 것이라는 통념[67－68]을 파괴함으로써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69]

(그림 3) Magritte, 강간, 1934.

1934년 Masson(Andrè Masson : 1896－1987)도 우주적 감정을 현실 세계로 구현해 내고자 강렬한 욕망이 깃든 작품인 『그라디바』(그림 4)에서 인간의 꿈의 영역 속에서 치부되어 왔던 에로티시즘의 용감한 전개를 과시했다.[70－71] 즉 여기에서 그는 살아있는 육체와 화석화된 부분 사이의



(그림 4) Masson, 그라디바, 1939.

긴장 즉, 온기가 도는 살결의 색조 및 음부의 형태를 드러내 보이는 넓게 벌린 다리와 그 옆의 중앙의 몸통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커다랗고 두터운 肉魂을 배치함으로써 에로티시즘을 억제되지 않은 성욕으로 표현해 놓고 있다.

2) 현대 패션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회화의 Eroticism

인간은 본능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그 역사를 보면 인류가 신체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하여 상흔이나 문신 등의 육체적 고통을 능히 감수해 왔다. 이어한 미적 욕구 충동은 지금까지 그 강도가 조금도 약화되지 않고 끊임없이 갈구하며 이어지고 있는데, 따라서 복식을 통한 신체 노출도 근본적으로는 아름다움 추구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인간의 정신세계와 새로운 생활 양식은 패션을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바뀌게 하였으며 탈과거라는 의미가 복식에서도 기능적이며 틀에서 벗어난 독창적인 스타일들로 등장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분위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패션 디자이너의 아이디어에 그 화 양식의 조형적 특징이 두드러지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초현실주의 스타일이 패션의 흐름으로 나타난 것은 1930년대 부터인데 이 때에는 초현실주의 회화의 이미지를 패션 디자인의 조형적 측면에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화작품을 의상 소재의 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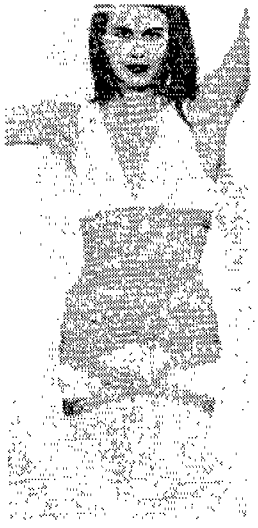
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으며 새로운 미의 추구로써 예술양식이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본능에 가까운 자연스러움을 나타내는 경향으로 초현실주의적 에로티시즘이 암시적이 아닌 직접적으로 표현되었다.

초현실주의의 에로티시즘은 현대 패션에서 부분적인 것을 위치 변경하거나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의 조화, 인체의 각 부분을 강조 또는 확대시키기도 하며 과장하는 등의 표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은 때로는 유머러스하고 꿈을 주기도 하며 때로는 당혹스럽기도 한 반면 때로는 지극히 천진스럽기 까지도 하여 우리에게 신선한 감각의 영역을 넓혀주고 의상에 또 하나의 새로운 개념을 형성하였다.

초현실주의자들은 비합리성과 불가사의를 이용해서 의식적인 사고 과정을 분열시키고 테러와 에로티시즘의 예술적 가능성을 개척함으로써 잠재의식의 활동을 해방시키기 시작했다.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개념 표현을 지각 표현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다.

초현실주의의 회화 작품들은 관능적인 가능성들의 증대와 전 신체의 성기화, 그리고 신선한 유혹, 새로운 자극과 만족을 구하였다. 이러한 내적 분위기는 Monteverdi작품 (그림 5)에서도 같은 초현실주의 에로티시즘의 조형성을 느낄 수 있는 패션 디자인이다. 즉 성적 부위를 장식으로 강조하는 것과 신체의 부분 노출은 에로티시즘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관능적인 표현을 하고자 하는 패션 디자인에서는 성적 충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성적 연상을 유발시키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Thierry Mugler의 작품 (그림 6)에서는 신체부위를 노출이 아닌 투시를 통해 간접적이고 은유적인 방법으로 에로티시즘을 표현하고 있다. 패션에 있어서 관능적인 분위기는 미니 스커트나 핫 팬츠와 같은 신체노출로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90년대에는 패션 디자인을 통해서 관능적인 분위기가 다양해지면서 Thierry Mulger의 작품 (그림 7)에서는 기상천외한 소재를 이용하여 에로티시즘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5) Monteverdi :, Harper's Bazaar, 1991, 9.

(그림 6) Thierry Mugler, Harpper's Bazaar, 1991, 9.

(그림 7) Thierry Mugler, Harper's Bazaar, 1992, 9.

즉 초현실주의의 개념속에는 상식을 벗어난 사고를 자극하는 모든 재료가 도입되고 있으며 의상에 있어서도 알미늄판이나 철사, 지퍼, 셀로판, 비닐, 금속판 등을 이용한 기발하고 독창적인 소재로써 초현실주의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신체노출이나 성적인 부위의 강조만이 아닌 색다른 표현 기법으로 에로티시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림 8) John Richmond, Harper's Bazaar, 1992, 9.

초현실주의가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은 신체의 관습적 표현을 초월하여 추상성의 개념을 패션 디자인의 아이디어로 나타나게 하였다. John Richmond의 작품 (그림 8)의 경우, 추상적 형태의 디자인으로 신체와 어울려져 에로틱한 추상성을 한층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을 통해서 장난스럽고 유머러스한 감각까지도 부여함으로써 보다 진보된 형태의 초현실적 조형성을 볼 수 있다.

90년대의 패션 분야에서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빈번한 뉴 스타일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경향은 신체가 바로 패션으로서의 표현 수단으로 역할을 하였다. Maurizo Galante의 작품 (그림 9)에서 보면 의상이 신체를 감싸는 역할이라기 보다는 신체와 의상의 새로운 패션을 창조하여 에로틱한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다.

(그림 9) Maurizo Galante, Harper's Bazaar, 1992, 9.

미래 패션은 속옷과 같은 형태를 겉옷으로 입거나 속옷을 입지 않게 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경향인데 이러한 유행은 현대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Chanel의 1993년도 작품 (그림 10)의 경우, 비치는 소재를 통해 보이는 인체가 성적인 부위가 아니어도 성적 연상을 관련지을 수 있게끔

(그림 10) Chanel, Moda, 1993.

유도하고 있으며 소재의 문양으로 은근히 가려져 있는 부분은 소재라는 일차적인 목적을 초월한 성적 연상의 심리현상을 일으킨다. 특히 이 패션 디자인에서는 자극적이지도 노골적이지도 않으면서 미묘한 충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같이 현대 패션을 통해서 본 초현실주의의 에로티시즘은 초현실주의가 주장하는 정신적, 심리적 세계와 그 맥을 함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팝 아트의 Eroticism과 현대 패션

1) 팝 아트에 표현된 Eroticism

팝 아트라는 용어는 원래 대중 문화가 만들어 내는 '대중 예술'을 가리키기 위한 명칭[72]이었지만, 그 후 대중적인 이미지를 '순수 미술'의 문맥 안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미술가들의 활동을 가리키는 명칭이 된 것이다.[73] 따라서 팝 아트 회화에는 전형적인 스타일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즉 그 말은 '양식'이란 개념이 없다는 것이다.[74] 그것은 본래의 속성상 양식이 없으며 그 이유는 예술을 범주화 하는데 반대하기 때문이다.

팝 아트 탄생에 필요한 조건은 팝적인 생활 양식이다. 즉 팝 아트 자체가 그러한 생활 양식에서 자연히 태어난 부산물로써 그와 같은 생활 양식의 자연스런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팝 아트는 당시 문화의 실망과 역겨움에 자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양식의 소재로써 상업적 문화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75-77]

즉 팝 작가의 행위를 정당화시켜 주는 것은 예술 작품을 생산하는 데 있다기 보다는 환경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 자신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논리를 받아들이는 점[78]에 있다. 또한 이들의 예술적 활동에 대한 정확한 명칭이 없었던 50년대 중반에는 네오 다다(Neo-Dada)라 불려지기도 했으나 일반적 이미지나 대상의 예술적 변형, 그리고 또 다른 철학적 내용은 다다와 구별이 되고 있다.[79-83]

상업화된 성의 이미지를 통하여 현대인들의 성에 대한 개념을 환기시키는 팝 아트는 대중 매체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시대적 풍토를 표현[84]함으로써 우리 주변에 널리 있는 사물들인, 형상들의 고유한 스타일에서 아름다움을 찾고자 했으며 이 점이 이 유파의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측면인 것이다.[85] 특히 현대 사회의 커다란 기계문명으로 인해 인간이 점차 비인간화, 비감성화, 비개성화 되어가는 현상을 깨달았으며 이에 따른 현상을 받아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소외된 인간성을 표현함으로써 인간의 가치를 재확인하려고 했던 것이다.[86] 대중매체 이미지에 참여하고 있는 현대예술의 목표는 대중매체와 경쟁적으로 겨루는 것이 아니라 이념적 가정과 표현의 메카니즘을 조명하게 될 비판적 실험에 종속시키려는 것이다.

팝 아트가 에로티시즘과 관련이 있는 것은 바로 대량 소비, 즉 상업적 특성과 관계되어 있다는 점[87]이며, 상업 문화 속에서 무한한 소재의 원천을 찾아내었다.[88] 그것은 상업적 전달 메세지로써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성이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유형으로 표현된 팝 아트의 에로티시즘은 현대인의 성적 갈등이나 도덕적 기준을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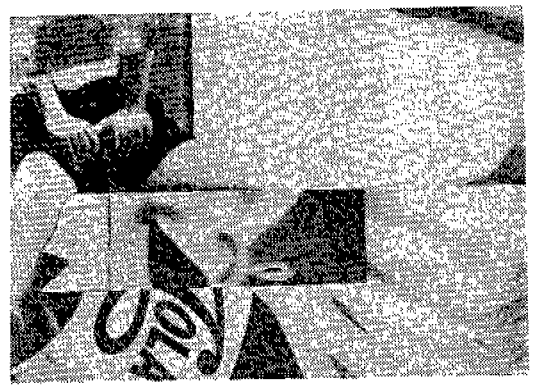
하면서 미술사의 흐름에 있어서 일상적 이미지의 수용과 반예술의 예술화로 영역의 확장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경고하고 도덕적으로 포장된 인간의 위선적 욕구를 지적하면서 인간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다.

팝 아트가 미국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순식간에 그 기반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대중 이미지'가 모든 미국인들의 생활 속에서 공통적으로 체험되고 있기 때문이었다.[89-92] 그러나 미국의 팝 아트는 영국처럼 어떤 뚜렷한 계기나 모임을 통해서 시발되지 않고 매우 자연적이고 산발적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뚜렷한 경향을 집어낼 수 있을 만큼 단조롭지 않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93-94]

미국의 작가들로는 Andy Warhol(1931－1987), Roy Lichtenstein(1923－), Tom Wesslmann (1931－), James Rosenquist(1933－), Claes Oldenburg(1929－) 등을 차례로 들 수 있다. 팝 아트 화가들 중 뛰어난 에로티시즘을 작품을 통해서 표현한 작가들 중 Tom Wesslmann은 누드를 통하여 개방된 성 표현과 동시에 미국인의 낙천적인 공간을 보이고 있다.[95] 그의 작품『위대한 미국형 누드 29』(그림 11)에서는 성욕을 자극하는 부분에 의해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다.[96-97]

James Rosenquist의 작품『퇴화된 부위』(그림 12)에서는 연인의 입술과 병 따개, 그리고 성행위

(그림 11) Tom Wesslmann, 위대한 미국형 누드 29, 1962.



(그림 12) James Resenquist, 퇴화된 부위, 1962.

은유적인 모습의 벌어진 다리 등을 그리고 있다. 또한 길다란 손가락에 칠해진 매니큐어에서 도시인의 성적 에로티시즘을 느끼게 하고 있다. 그는 현대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상업 사회에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발견하려고 하였고 그의 작품은 사상이 담겨져 있는 독창적 교훈주의를 띠고 있다.[98]

Andy Warhol은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대상을 선택하고 있으며 마릴린 몬로, 리즈 테일러와 같은 대중의 에로티시즘의 대상인 영화배우의 얼굴이나 화제의 주인공의 얼굴 사진을 선택하였다.[99-101] 그는 유행의 필연성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유행의 생태와 스타들이 적대시 되지 않고 편하게 그리고 친숙해지게 하였다.[102] Warhol은 이 얼굴 사진들을 반복 배열시킴으로써 기계적 생산체제에서 오는 보편화된 환경의 탈개인화에 대한 재현으로써 비인간화와 문화에 대한 비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103-105]

그의 작품『마릴린 몬로』(그림 13)에서 몬로의 얼굴 처리는 영화배우의 화장과 미용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이 작품으로써 기계적으로 제조되는 실크스크린 기법의 비인간적 요소도 강조하면서 몬로의 비극적 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인간적 조건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106-108]

미국의 팝 아트는 현실 세계의 풍요로운 물질적

(그림 13) Andy Warhol, 마릴린 몬로, 1962.

(그림 14) Richard Hamilton, 오늘날의 가정을 이토록 색다르고 멋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1956.

인 삶에의 찬양과 함께 또 다른 시각으로써 현실 비판을 꾀하고 있으며 물질만능주의적인 정신적 황폐성을 주장함으로써 현대인들의 생활의식을 환기시키기도 하였다.

에로티시즘에 대한 고집은 미국보다 영국 팝 아트에서 강하게 보였다. 1950년대 말에 쾌락주의가 뿌리를 내렸고 1960년대의 영국은 갑작스런 번영에 의한 자유로움으로 인하여 성적 관심이 강하게 나타났다.[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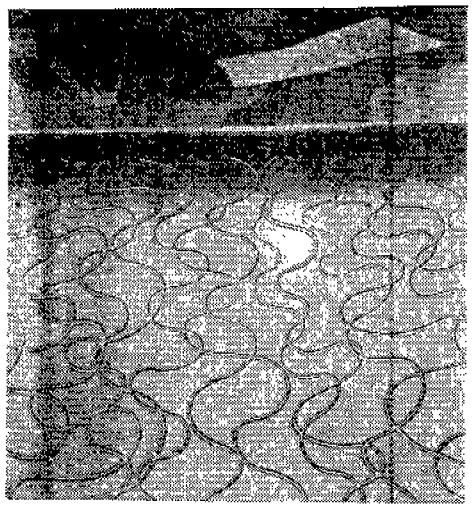
영국의 팝 작가들은 자기 고백이나 자기 발견에 의한 해방적 기분으로 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영국의 팝 아트는 미국의 경우보다 더욱 양식적 관점에서의 보류가 곤란하다. Richard Hamiltion의 경우는 엄밀성, 흥분의 배제, 다른 팝 작가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냉소적인 위트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110] 그의 작품은 하나의 개념의 구현이고 개념 자체가 물질적 형태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작품간에 양식상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111]

Hamiltion의 작품『오늘날의 가정을 이토록 색다르고 멋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그림 14)에서는 현대인의 실제적인 생활의 한 단면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112-113] 그는 여기에서 우리의 환경이 대중매체를 통해 비속한 대중문화로 점유되고 있다는 것을 주의깊게 관찰하면서 우리 주위의 일상적 사물과 이미지를 다루고 있다.[114-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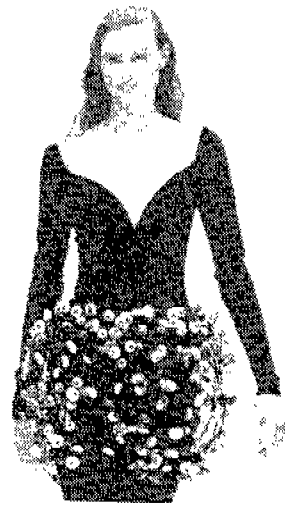
또한 Hamiltion은 사진을 사실 기록으로써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인간적 사실에 뿌리박은 환상으로써 사용하여 인간과 기계 사이의 친밀한 접촉을 탐구하였다.[117]

영국 팝 아트에 영향을 준 작가들은 David Hockney(1937－), Derek Boshier(1937－), Allen Jones(1937－), Peter Phillips(1939－), R.B.Kitaj(1932－)등이다. 이들 팝 작가들은 현대 사회의 기계화에 따른 현대인의 비인간화에 대한 상황을 깨닫고 이에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인간의 참된 가치를 재인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Hockney의 경우는 보통의 화가들이 여성을 주제로 하여 그림을 그리는 것과는 달리 남성을 주제로 하여 그림을 많이 그렸다. 그는 동성애적인 경향과 더불어 묘사에 있어서도 강한 성적 표현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팝 아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118] 작품『일광욕을 하는 사람』(그림 15)에서는 쾌락적인 생활 양식과 동성애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광욕 하는 사람은 풀



(그림 15) David Hockney, 일광욕을 하는 사람, 1966.



(그림 16) Blumarine, Harper's Bazaar, 90/ 91.

장의 물결치는 물처럼 일련의 조화로운 규범적 기법으로 그려져 있다. 그의 에로티시즘은 동성애의 고백과 더불어 해방감을 표현하는 것이다.

2) 현대 패션에 나타난 팝 아트 회화의 Eroticism

2차 대전 이후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문화의 특징을 반영하는 예술로 등장한 팝 아트는 건축, 음악, 문학, 회화, 조각은 물론 의상에 까지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었다. 특히 팝 아트가 현대 의상에 미친 영향은 유모와 재치가 있는 의상으로 발전하여 밝고 활기찬 분위기의 미래지향적이고 최첨단의 스타일로 추구되었다.

이러한 팝 아트 스타일의 패션 디자인에서 나타나는 에로티시즘은 초현실주의와는 미적 조형 요소가 많은 차이점이 보인다. 그 조형 요소 중 문양에서 표현되는 것을 보면 초현실주의의 스타일은 상상력을 초월한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로 표현된 반면 팝 아트 스타일은 일상 생활에서 흔히 접하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느낄 수 있는 소재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나타나고 있다.

Blumarine의 작품 (그림 16)의 경우, 패션에서 기능성과 실용성을 위해 주로 부자재로 애용되어 왔던 단추로 스커트 실루엣을 형성하고 있다. 이것은 현대인의 생활 공간 도처에 널려 있어서 우리의 사고 속에서 기억되지 않는 것을 소재로 택하여 현란하면서도 젊음을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이 패션 디자인은 성적 부위에 남근의식이라는 조형물로 만들어져 묘한 시선을 유도하는 에로티시즘적 발상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Jean-Charles de Castelbajac의 작품 (그림 17)의 경우도 직물의 문양에서 팝적인 요소를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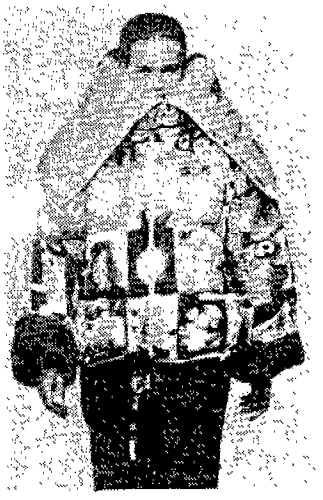
(그림 17) Jean-Charles de Castelbajac, Harper's Bazaar, 90/ 91.

견할 수 있다. 패션에 있어서 관능성은 신체의 성적 부위의 노출이나 과장된 강조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되는데 이 패션 디자인에서는 반투명한 소재를 이용함으로써 완전 노출 보다는 은밀함을 주는 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팝 아트의 이미지는 내향적 이라기 보다는 외향적 이미지를 보이는데 Castelbajac의 디자인의 경우도 외향적인 느낌을 지니고 있다. 역시 실제 모습보다는 과장된 사람 얼굴 문양이 패션에 도입됨으로써 성적 충동을 유도하며 에로티시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팝스타일의 패션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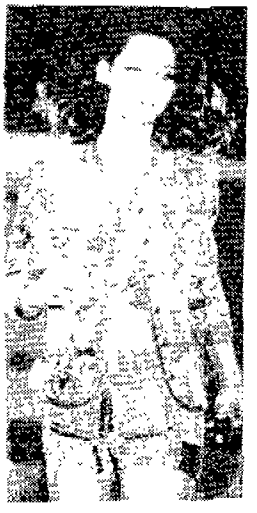
그의 또 다른 작품 (그림 18)에서도 팝 아트 양식을 볼 수 있는데, 이 패션 디자인의 직물 문양에서는 팝 아트 회화에서 자주 등장하였던 연재 만화 시리즈를 느끼게 해 준다. 소재나 주제에 있어서 모든 것이 통용되는 완전한 자유로 통하는 문을 열어 놓았던 팝 아트적 요소가 이 패션 디자인을 통해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데, 그러므로써 생기발랄함, 현대적인 감각을 주고 있다.

또한 일상 생활에서 무시되어 왔던 소재들을 재구성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을 창출해 내는 팝 아트의 현대성은 에로틱한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패션 디자인은 그와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팝 아트 회화는 개성적인 것을 추구하거나 현실을 재창조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공된' 이미지를 가지고 이루어진다.[119] 따라서 조잡한 만화로 부터 빌려온 스타일이나 대중적이며 싸구려인 것 등을 교묘히 이용하는 기계화, 획일화된 현대인의 사고에 새로움과 충격을 주는 에로티시즘을 재창조해 낸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그림 18은 내적 세계에서 그 흐름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Gianni Versace의 작품 (그림 19)의 직물 문양에서는 Warhol의 회화에서도 자주 등장하였던 몬로 얼굴의 다양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현대인의 사고에 성적 상징의 대표적인 영화배우로써 자리잡고 있는 몬로 얼굴을 주제로 택함으로써 에로티시즘의 의미를 신선하게 제시하고 있다. 즉 일반 대중으로서는 가까이 하기 힘든 상대를 주제로 택함으로써 친밀감, 젊음, 매력 등을 느끼게 해 준다. 회화에서나 패션에서나 모두 대중적인 소재를 객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통속적인 관능미 이상의 것을 팝 아트는 제시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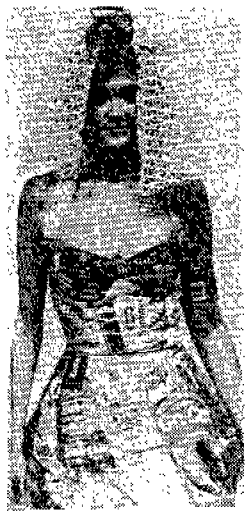


(그림 18) Jean-Charles de Castelbajac, Harper's Bazaar, 90/ 91.



(그림 19) Gianni Versace, Harper's Bazaar, 1991, 9.

그림 20은 우리가 생활 쓰레기로써 깡통이나 포장 등을 한데 어울려 놓은 것 같은 문양 디자인이다. 팝 작가들 중에는 자신이 수집한 우편엽서, 단추, 장난감 등을 문짝이나 선반, 테이블 등에 아무렇게나 배치하여 작품을 제작함으로서 팝 아트에서 추구된 에로티시즘에 접근하였다. 이 패션 디자인도 관능적인 실루엣에 문양이 더욱 그 관능적인 요소를 강화시키는 팝 아트적 에로티시즘의 표현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0) Red or Dead, Harper's Bazaar, 1991, 9.

그림 21의 Jean-Charles de Castelbajac의 작품에서는 다양한 매체의 사진들을 나열한 것과 같은 문양으로써 부드러우면서도 호화로운 색채의 추상 회화를 연상시키는 패션 디자인이다. 특히 미국의 팝 아트에서는 추상 미술의 형식과 이미지가 혼하게 발견이 되며 여러가지 소재를 이용하여 젊음을 부여하였다. 이 패션 디자인은 비닐과 같은 관능적인 소재가 추상적인 문양으로 더욱 자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하드 에지(hard-edge) 풍[120]의 색채와 대중적이고 재현적인 이미지를 전달해 주는 팝 아트 스타일의 패션이다.

대량 전달 메세지로써의 팝 아트의 에로티시즘은 그들 나름대로의 현대 미술의 새로운 길을 개

(그림 21) Jean-Charles de Castelbajac, Harper's Bazaar, 1992, 9.

척하였으며 인간 존재 가치의 문제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팝 작가들은 현대인의 무미건조한 정신 세계와 비인격적인 생활에 지적이고 활력있는 그 무엇인가를 에로티시즘을 통하여 찾고자 함으로써 진정한 인간 가치를 확보하려 하였다. 즉 편견 속의 부정적인 차원을 초월한 인간성의 탐구라는 새로운 영역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Ⅳ. 결 론

20세기 초에 즈음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들은 과학적인 발전으로 인한 물질풍요와 함께 전통적인 가치관의 붕괴를 가져왔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사고관도 이와 비슷한 변화를 반영하였으며 예술에 있어서도 과거 전통에 대한 집착이 도전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사회의 복잡한 변화 양상들은 더욱 빠르게 더욱 자주 바뀌게 되면서 현대 문명의 '인간소외 현상'을 잉태시키게 했던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화, 의상 등의 예술에서 현대인들의 비인간성, 비감수성의 특성 등을 극복하고 생명력 있고 오염되지 않은 정신 세계로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하게 된 에로티시즘이 어떠한

표현 양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예술에 있어서 에로티시즘은 인간 본능적인 욕망이나 생식 행위와는 무관한 인간 본연의 감각과 사고에 생명력을 불어넣음으로써 현대인의 사고의 무질서를 회복하려는 바탕에서 형성되었으며, 현대 회화의 초현실주의와 팝 아트 양식에서 두드러지게 조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꿈의 회화로 알려진 초현실주의에서는 그 회화 작품에서 모순적 요소를 병렬시키는 것이나 둘이나 그 이상의 물체를 이용하여 이미지가 응축된 것, 그리고 상징적 가치를 가진 물체를 이용하여 에로티시즘을 표현하였으며 물질적인 차원에서 성공을 거둔 회화인 팝 아트에서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영상들, 즉 가공처리된 영상들로 부터 과학 문명의 산물인 획일화된 사고에서 새로움의 욕구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에로티시즘 양식을 취하였던 것이다.

초현실주의와 팝 아트에서 수용된 에로티시즘은 현대 패션의 소재나 문양, 실루엣, 색상 등에서 재조명되어 표현되고 있는데, 이 현대 여성 패션에서의 에로티시즘은 상품화된 성적 표출이 아닌 패션 흐름 속에서 구현되는 개성적이며 독창적인 디자인 아이디어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현대 예술가들은 기존질서를 파괴하고 부정하려는 에너지를 에로티시즘 양식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인간의 성에 관한 충동과 욕망을 인간의 정서로 환기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조형 본능으로 승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1세기를 지향하는 현 상황에서 에로티시즘은 모든 예술 부분에 풍요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현대인들에게 소멸되어 가고 있는 인간성을 회복시키는데 생명력을 가진 요인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예술 부분 뿐만 아니라 심리학적 측면이나 정신분석학적인 측면에서도 보다 더 진보되는 연구가 진행됨으로써 문화의 하위개념으로써의 성의 역할이 아닌 긍정적인 문화발달의 원천임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할 때, 더욱 가치가 있으리라 본다.

참고문헌

1. 장명규, 예술로써 표현되는 性의 양태와 의미 -미술을 중심-, 동국대 석사논문, 1986.
2. 박동수, S.Freud에 있어서의 에로스와 예술, 홍대 석사논문, 1989.
3. 양희분, 에로티시즘 회화를 통한 인간성 회복의 표출, 충남대 석사논문, 1992.
4. 노숙경, 현대 미술에 나타난 에로티시즘 연구, 홍대 석사논문, 1992.
5. 신원섭, 초현실주의 회화에 관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적 해석 -에로티시즘을 중심으로-, 홍대 석사논문, 1983.
6. 정영진, 초현실주의에 표현된 에로티시즘에 관한 연구, 공주사대 석사논문, 1988.
7. 이애리, 앙드레 마송의 회화에 있어서의 에로티시즘에 대한 연구, 홍대 석사논문, 1988.
8. 이홍주, 팝 아트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석사논문, 1990.
9. 유행옥, 조각작품에 표현된 에로티시즘, 이대 석사논문, 1990.
10. 오여성, 광고사진의 에로티시즘에 관한 연구, 숙대 석사논문, 1990.
11. 전혜정, 복식의 에로티시즘 양식, 서울여대 박사논문, 1993.
12. 남후남, 패션 디자인에 표현되는 여성의 인체 노출에 관한 고찰, 홍대 석사논문, 1992.
13. 함정도, 실내디자인과 에로티시즘, 기문당, 1993, P.32.
14. 김덕자, 광고와 에로티시즘, 미진사, 1989, p.62.
15. Drs. Phyllis & Eberhard Kronhausen, The Complete Book of Erotic Art, Bell Publishing Company, 1978, P. 3.
16. 김덕자, *op. cit.*, P.60.
17. Ibid., P. 61.
18. 함정도, op. cit., P.42.

리비도 : 리비도란 굶주림이란 뜻과 비슷한데 굶주림은 무엇을 먹겠다는 욕망이지만 리비도의 경우는 성 본능을 발현시키는 힘이다.
19. 이난주, 예술 작품에 나타난 性 표현의 양태, 미술세계, 1991. 1, P.40.
20. 김덕자, op. cit., P.47.
21. 함정도, op. cit., P.52.
22. Drs. Phyllis & Eberhard Kronhausen, op. cit., P.89.
23. 홍가이, 현대 미술. 문화 비평, 미진사, 1989, P.712.
24. 이난주, op. cit., P.39.
25. Drs. Phyllis, op. cit., P.52.
26. Ibid., P.8.
27. Ibid., P.8.
28. 함정도, op. cit., P.57.
29. John Russell, The Meaning of Modern Art, Thames & Hudson, 1989, P. 209.
30. 한스로크마크, 김유리역, 현대 예술과 문화의 죽음, 한국기독학생회, 1993, P.176.
31. 로베르 르네, 김정란 역, 초현실주의 1, 열화당, 1922. P.18.
32. 허버트 리드, 김윤수 역, 현대 미술의 원리, 열화당, 1991. P.93.
33. C.W.E.Bigsby, 박희진 역, 다다와 초현실주의, 서울대 출판부, 1987. PP.98-99.
34. Jean-Louis Ferrer, Art of our century, Prentice Hall Press, 1989, P.847.
35. William Rubin, Primitivism in 20th century art, The Museum of Modern Art, 1984, P. 541.
36. 오광수, 서양 근대 회화사, 일지사, 1989, P. 106.
37. 박희진 역, op. cit., P.62.
38. E.H.곰브리치, 최민 역, 서양미술사(하), 열화당, P.594.
39. 임영방, 현대 미술의 이해, 서울대 출판부, 1990. P.182.
40. 박희진 역, op. cit., P.97.
41. Bernard S. Myers, The History of Art, Exter Books, 1985, P.863.
42. 이경성, 미술이란 무엇인가, 일지사, 1993, P.187.
43. A. 하우저, 백낙청 외 역,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현대편), 창작과 비평사, 1989, P. 238.
44. 함정도, op. cit., P.53.
45. 박용숙, 현대 미술의 구조, 열화당, 1989, P. 125.
46. 김윤수 역, op. cit., P.112.
47. 김해성, 현대 미술을 보는 눈, 열화당, 1991, P.76.
48. David Britt, Modern Art, Thames & Hudson, 1989, P.424.
49. 니코스 스텐고스, 성완경 외 역, 현대 미술의 개념, 문예출판사, 1994, P.205.
50. Michael Wood, Art of the Western World, Bruce Cole & Adelheid Gelt, 1989, P.290.
51. 호세 피에르, 박순철 역, 초현실주의, 열화당. 1990, P.23.
52. 임영방, op. cit., P.193.
53. Brenard S. Myers, op. cit., P.868.
54. Drs Phyllis, op. cit., P.91.
55. 김덕자, op. cit., P.106.
56. H.H. 애너슨, 이영철외 역, 현대미술의 역사, 인터내셔널 아트디자인, 1991, P.312.
57. S. 알렉산드리안, 이대일 역, 초현실주의의 미술, 열화당, 1990, P.113.
58. Vittorio Sgarbi, The History of Art, Gallery Books, 1988, P.410.
59. David G. Wilkins & Bernard Schultz, Art past Art present, Abrams, 1990, P.484.
60. David Britt, op. cit., P.243.
61. 오광수, op. cit., P.111.
62. John Russell, op. cit., P.210.
63. 성완경 역, op. cit., P.207.
64. David Britt, op. cit., P.425.
65. John Russell, op. cit., P.216.
66. David Britt, op. cit., P.485.

67. 박순철 역, op. cit., P.29.
68. 이대일 역, op. cit., P.132－133.
69. 정병관 외, 현대 미술의 동향, 미진사, 1989, PP.224－225.
70. David Britt, op. cit., P.227－229.
71. Vittorio Sgarbi, op. cit., P.408.
72. 루시스미드, 전경희 역, 팝 아트, 열화당, 1993, P.7.
73. Machael Wood, op. cit., P.311.
74. Jean－Louis Ferrer, op. cit., P.845.
75. H.W.Janson, History of Art, Abrams, 1991, P.749.
76. David Britt, op. cit., P.305.
77. John Russell, op. cit., P.347.
78. 루시스미드, 전경희 역, op. cit., P.17.
79. David G. Wilkins, op. cit., P.498.
80. Fredric Hartt, ART, Prentice-Hall Abrams, 1979, P.460.
81. 성완경 외 역, op. cit., P.329.
82. 이영철 외 역, op. cit., P.490.
83. Michael Wood, op. cit., P.309.
84. Vittorio Sgarbi, op. cit., P.409.
85. 김유리 역, op. cit., P.217.
86. 김춘일, 팝 아트와 현대인, 열화당, 1989, P.58.
87. 高階秀彌, 西洋美術史, 1991, P.177.
88. H.W.&D.J. 잰슨, 유홍준 역, 회화의 역사, 열화당, 1992, P.241.
89. Bernard S. Myers, op. cit., P.914.
90. 성완경 외 역, op. cit., P.328.
91. 이영철 외 역, op. cit., P.494.
92. 이 일, 현대 미술의 시각, 미진사, 1989, P.239.
93. 김춘일, op. cit., P.38.
94. 루시스미드, 전경희 역, op. cit., P.8.
95. 루시 R.리피드, 전경희 역, 팝 아트, 미진사, 1990, P.137.
96. David Britt, op. cit., P.326.
97. 김춘일, op. cit., P.51.
98. David Britt, op. cit., P.325.
99. Bernard S. Myers, op. cit., P.914.
100. David Britt, op. cit., P.316.
101. 로즈메리 람버트, 김창규 역, 20세기 미술사, 애경, 1991, P.81.
102. 루시스미드, 김춘일 역, 현대 미술의 흐름, 미진사, 1989, P.166.
103. Vittorio Sgarbi, op. cit., P.495.
104. 김춘일, op. cit., P.48.
105. Fredric Hartt, op. cit., P.463.
106. 이영철 외 역, op. cit., P.504.
107. 高階秀彌, op. cit., P.178.
108. 이 일, op. cit., P.217.
109. David Britt, op. cit., P.331.
110. 루시스미드, 전경희 역, op. cit., P.13.
111. 성완경 외 역, op. cit., P.338.
112. 김춘일 역, op. cit., P.145－146.
113. 이영철 외 역, op. cit., P.492.
114. Bernard S. Myers, op. cit., P.913.
115. 성완경 외 역, op. cit., P.326.
116. David Britt, op. cit., P.335－336.
117. 루시 R. 스미드, 전경희 역, op. cit., P.53.
118. David Britt, op. cit., P.344－345.
119. 루시스미드, 전경희 역, op. cit., P.19.
120. hard－edge : 1950년대 말기에 일어나 60년대에 유행한 미국의 기하학적 추상운동. 당시 미국에서 지배적이던 액션 페인팅의 원리에 반기를 들고 단단한 가장자리(hard－edge)에 의해 화면을 구성하며 하드에지에서는 형태가 화면 전체를 지배하여 분할이 불가능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lluminate eroticism represented in modern fashion. Art based on sex is very important like all of the other cultural values.

But we feel that erotic art, neglected, suppessed, and persecuted for centuries, has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make to the understanding of art, the social history of mankind, and human happiness and progress.

It is our deep personal conviction that erotic art serves important social and therapeutic functions.

Erotic art expresses the demand for sexual freedom—a freedom vital to individual happiness and mental well-being. And sexual freedom, in turn, cannot exist without a high degree of political and economic freedom as well. In that sense, erotic art cames a truly revolutionaly message: it demads no less than extension of freedom, not only in the sexual area, but in every sphere of social life.

What is eroticism? Eroticism must be distinguished from a mere animal reproduction. Eroticism is deeply rooted in the cultural tradition of myth, religion, customs and art. It also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psychological activities of our life. Eroticism is a kind of psychological revolution in the development of human civilization.

Eroticism is related to different kinds of art, which express internal sprit of human especially Surrealism.

Surrealism is above all a movement of the conquest and deepening of the unconscious. The exploitation of Freud's discoveries opened a new, practically unlimited path for artistic studies to Surrealism. Especially all theory of mental psychoanalysis a affected artists greatly in western art, Freud was appraised highly on his achievements by art critics in art history. As far as erotic subject matter was concerned, Surrealism provided a means of presentig it.

Pop Art is not actually a movement, born at a specific time and place, nor is it an easy concept to define. The term first appeared in Great Britain during the fifties, when it referred, particularly in the decorative arts, to an inclination to go back and imitate the stereotyped images of the mass media: film, advertising, cartoons, and other popular consumer products.

The eroticism expressed in Pop Art calls the modern's attentions to their devastated minds, taking advantage of the commercialized sex.

Fashion has developed constantly reflecting the spiritual aspiration and social and cultural phenomona of man, and artistic stream. Especially western modern women's fashion were greatly affected by the eroticism.

Eroticism in fashion is the style which expresses the internal meanings of sexuality through the texture, color, pattern, silhouette etc.